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20~11/2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위빳사나수행 28일	자나까비왐사/케마	한국빨알리성전협회	6	네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대념처경과 그 주석서(초기불전001)	각묵옮김	초기불전연구원
2	만해 한용운 도올이 부른다(2)	김용옥	통나무	7	철학으로서의 불교(대원불교학술총서09)	마크 시더리츠	운주사
3	만해 한용운 도올이 부른다(1)	김용옥	통나무	8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4	요가수행디피카(아행가요가시리즈5)완전함 내면의 평화 해탈의 길	아행가,존J.에반스, 더글라스 에이브람스	선요가	9	불멸(1) 영원한 지금의 메시지*개정판	이각 지음	지혜의 눈
5	불멸(3) 아무래도 아무렇지 않은	이각	지혜의눈	10	불소행찬(상) 부처님의 생애	마명/나가성타	두배의 느낌

자승 대종사 金言, 시인이 풀어 엮다



자승 스님의 묵묵부답
자승 스님, 신동호 지음
자음과모음/ 2만2000원

2009~2017년 총무원장 재직 시절 행사, 강연 등서 나눈 이야기 모아
신동호 시인, 아포리즘을 써 연결
지남 삼을 자승 대종사 어록 '감동'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우리 불자들에게 보시란 육바라밀의 제1수행법이자 무량공덕의 창고로 가는 열쇠입니다. 나의 재산과 시간을 대가 없이 남에게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쉽다면 어찌 수행이 되겠습니까? 어렵지만 실천하다 보면 내 마음속 아집이 녹아내리고 복덕이 구족하여 성불의 인연이 맺어지게 됩니다.

–82쪽, 자승 스님, '나는 세상에 무엇을 주고 갈 것인가' 중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평생을 걸쳐 노력했던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어록 중 일부다. 〈자승 스님의 묵묵부답〉은 '자승스님 말하고 신동호 새겨 적다'라는 지은이 표기에서 보이듯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일하던 시절 행사, 강연 등에서 나눈 이야기를 모으고, 신동호 시인이 그에 연결되는 아포리즘을 쓴 에세이집이다. 자승 대종사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새길 만한 내용을 가려 뽑은 말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승 스님의 묵묵부답〉에는 일반 대중이 모르는, 불자들도 잊고 있던 자승 대종사의 따듯한 모습, 사회를 향한 실천행에 관한 글들이 가득하다. 삶에 대한 깊은 통찰과 종교와 사회에 외치는 변혁의 소리, 우리의 모범이 될 만한 스님들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하며 불자가 아니어도 '좋은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생활 속에서 하루 한 구절을 통해 삶을 다시 바라보고, 잊어버린 가치를 되찾고, 한국불교를 자승 대종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해봉당 자승 대종사는

1954년 춘천에서 태어나 춘천댐 건설로 화천으로 이주했다. 불법과 승가의 인연을 일생의 복으로 삼아 봉정암에서 기도정진하며 겨울 설악처럼 묵묵함을 담고, 통도사 · 동화사 · 봉암사 제방선원에서 불립문자에 다가갔다. 용인 대덕사를 창건하고, 영월암과 수원포교당에서 대중포교에 매진했다. 2009년 제33대, 2013년 제34대 조계종 총무원장에 취임했으며 시대와 함께하는 불교, 불교 중흥을 향한 비바람에 맞섰다. 총무원장 퇴임 후에는 백담사 무문관에서 정진했으며 2019년 '상월선원 천막결사', 2020년 '국난극복 자비순례'로 세상 속에서 함께 울고 웃는 불교를 위해 앞서 행동했다. 2021년 '삼보사찰 천리순례', 2022년 '평화방생순례'는 길 위에서의 참선,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행원이었다. 2023년 인도순례 "생명존중, 붓다의 길을 걷다"는 뭇 생명의 편안함, 평화를 발원한 마지막 발걸음이었다. 2023년 11월 29일 법납 51세, 세수 70세 일기로 열반에 들었다.

책은 총 5장으로 이뤄져 있다. 1장 '우리 시대의 깨달음'에서는 불자가 지녀야 할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스스로를 돌아보아 깨닫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작을 연다. 2장 '우리 시대의 수행길'에서는 수천 년을 이어져 온 불교예술이 미치는 긍정적인 점을 주로 다뤘다.

3장 '우리 시대의 고행길'은 계층·세대 등의 갈등에 관한 이야기와 쌍용차 노사분규, 세월호 사건 등 사회 문제에 대한 어록을 담았다. 4장 '우리 시대의 해탈길'에서는 불교계 내의 사회 참여를 소개하며, 수고한 이들을 다독인다.

5장 '우리 시대의 스승들'에서는 스님들에 관해 소개한다. 법정 스님, 성철 스님, 만해 스님 등 독자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을 스님들과 함께 불교계에 큰 족적을 남긴 스님들의 삶을 조망하며, 그들이 삶을 통해 들려주려 했던 말에 공명한다.

신동호 시인은 자승 스님이 수행에 대한 아쉬움만을 남기고 떠나셨다고 회고한다. 불교개혁과 사회 화합을 위해 자주 세간에 서 계셨던 스님이었지만 늘 마음은 수행처에 가 계셨다고, 시대에 맞는 개혁을 위해 모두를 위로했고, 온갖 오해와 억측까지 그저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두셨다고 한다.

개혁의 순수한 의도를 지키기 위해, 사회 화합을 위해서는 인지상정의 마음과 역지사지의 태도로 편견을 버리고자 노력했고,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임을 알리기 위해 그저 말없이 버텨나가셨다고 한다.

출판사 측은 〈자승 스님의 묵묵부답〉은 대종사가 홀로 가져가신 오해와 억측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획됐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자승 대종사가 우리 시대의 어른으로 얼마나 자신의 역할을 다하셨는지, 남겨놓은 말씀이 얼마나 주옥같았는지 알게 됐다고 한다.

〈자승 스님의 묵묵부답〉이 가지는 힘은, 불교계의 쇠퇴를 맞이하는 중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다방면으로 불자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한 자승 대종사의 진솔하고 강력한 말에 있다. 이 말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울림을 준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천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힌다. "자승 스님은 평소 말씀이 적었습니다. 지극히 절제하셨습니다. 〈자승 스님의 묵묵부답〉에 실린 스님의 글과 말들은 언어적 메시지에 멈춰 있지 않고, 시대 상황 위에서 생동하는 입체적 메시지입니다."

오디오북으로 만나는 '전등수필'



전등수필 1, 2권 오디오북
월암 지음 / 담앤북스 / 각 권 1만6800원

'전등사서' 읽기 선풍을 일으킨 월암 스님의 〈전등수필〉을 저자인 월암 스님과 전문 성우의 목소리로 듣는다.

담앤북스는 이 시대의 참된 수좌로 한국불교의 선맥을 잇고 있는 월암 스님(한산사 용성선원장)의 〈전등수필〉1, 2권을 오디오북으로 제작했다.

〈전등수필〉은 월암 스님이 〈전등록〉과 〈선문염송〉 등 여러 '전등사서(傳燈史書, 선사들의 법어와 선문답, 전법 내력 등을 모아 놓은 책)'를 열람하며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 글귀를 엄선해 담박한 해설과 법문을 더한 책이다.

오디오북에서는 1권 108편, 2권 100편 등 총 208편의 글을 전문 성우와 월암 스님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다. 성우가 본문을 읽은 후 월암 스님이 핵심 구절을 직접 낭독해, 마치 법회 현장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는 듯하다.

월암 스님은 "오늘의 출가수행자들이 여러 권의 전등사서를 모두 공부하기는 어렵겠지만 핵심 종지에 대한 정견을 갖추고, 재가수행자들은 불조의 수증기연 가운데 귀감이 될 만한 언구를 삶의 지침으로 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출간 소감을 밝혔다.

바쁜 일상과 영상 콘텐츠의 범람으로 책 한 권 읽기 쉽지 않은 시대다. 하지만 출퇴근길 혹은 잠깐의 여유 시간에 〈전등수필〉 오디오북을 듣다보면, 죽비처럼 따끔하면서도 담박한 월암 스님의 가르침이 허기진 마음속 공양간을 가득 메워줄 것이다.

〈전등수필〉 오디오북은 11월 7일부터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네이버 오디오클립, 북큐브에서 구입할 수 있다. 재생시간은 1권 6시간 36분, 2권 6시간 44분. 담앤북스 유튜브 채널(@dhamenbooks_media)에서는 오디오북 일부를 미리 들어볼 수 있다. 박재완 기자

7살 어린이~70대 어르신의 발원들



그대 향한 길
불교여성개발원 엮음
권영순 그림
민족사/ 1만 3500원

불교여성개발원이 엮어낸 〈그대 향한 길〉은 일곱 살 유치원생부터 70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망라하여 간절한 발원문을 모았다. '세대가 함께하는 불자 생활 의례 발원문'이라는 부제에서 볼 수 있듯이 재가불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발원문을 총망라하여 한 권의 책으로 모아 놓은 책이다.

특히 불교여성개발원 산하 불교여성연구소에서 콘텐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한 '세대가 함께하는 발원문 교실'에 참여한 여성 불자 108인들과 자녀, 손자 손녀 등 총 38명이 정성스럽게 작성한 발원문이 담겨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이 책은 모두 10장으로 나뉘어 편집, 출생부터 장례, 제례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에 따른 발원문 38편을 담아 놓았다. 각 장마다 권영순 작가(여성 불자 108인)의 그림과 적절한 선시(禪詩)와 경전 구절 등을 곁들여 보는 즐거움을 더했다.

또한, 이기향 불교여성개발원장의 머리말처럼 7세부터 일흔이 넘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불자들이 직접 작성한 발원문을 모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색이자 가장 큰 장점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대 향한 길〉 발원문을 바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한국불교의 밝은 미래가 보이는 것도 바로 그런 까닭에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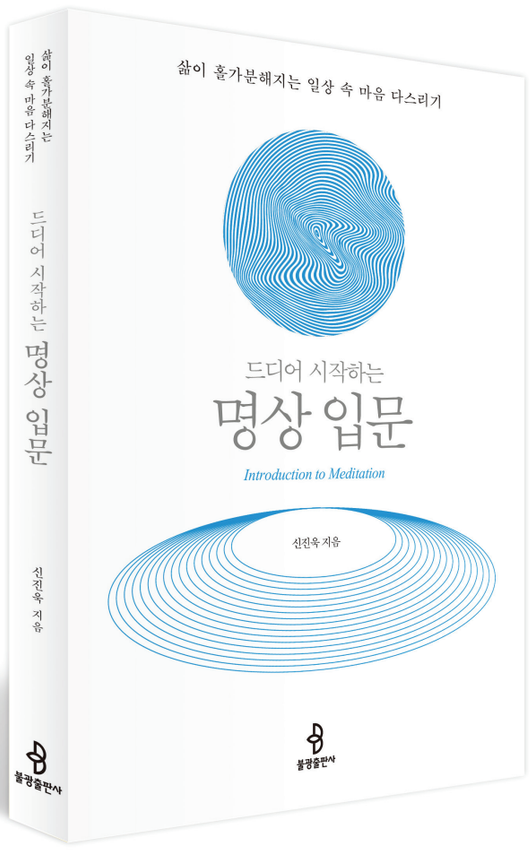
신중일 기자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 명상!
소란한 마음에서 벗어나
풍요로운 지금을 사는 비결

Introduction to Meditation

이 책은 명상의 긍정적 효과에 관한 방대한 자료와 정보들 속에서 수행의 입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풀어낸 책이다. 명상의 목적이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불교의 핵심을 잊지 않으면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독자를 친절하게 명상의 입문으로 안내한다.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이 진정한 행복에 한걸음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일묵 스님(제따와나선원 선원장, 『사성제』 저자)



명상은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가?
명상을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훈련
삶이라는 바다에서 우아하게 서핑하기

삶이 홀가분해지는 일상 속 마음 다스리기
드디어 시작하는
명상 입문

신진욱 지음 | 232쪽 | 18,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